

» 제품안전 자율이행 협약식 개최



소비자로 구성된 30명의 '제품안전지킴이단'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제품·생활용품·어린이용 제품들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직접 점검에 나선다.

기술표준원은 정부주도의 시판품조사, 시·도 단속등 사후 안전관리를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전예시적 자율안전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7월부터 시행하였다.

금번에 시행하게 되는 사전예시적 자율안전관리시스템은

- ▲ 정부에서는 중점 안전관리 대상품목과 안전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 ▲ 기업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제품안전 자율이행협약」을 체결하고,

▲ 민간단체로 구성된 제품안전지킴이단이 기업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 권고하는 한편 정부의 안전관리정책에 반영하거나 조치를 요청하는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자율이행 협약에 참여한 제조·수입업체가 공급하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에는 '제품안전 자율이행' 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이행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에는 정부포상 및 정기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자율안전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술표준원은 2006년 7월 13일(목) 기술표준원 대강당에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300개 자율이행 희망업체, 제품안전지킴이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품안전 자율이행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기제품은 업체대표인 김영우 신한일전기 사장과 전기제품안전지킴이단장인 박삼규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생활용품은 업체대표인 차석용 LG생활건강 사장과 생활용품안전지킴이단장인 박호군 인천대 총장이, 어린이용 제품은 업체대표인 황선주 유니온랜드 사장과 어린이용 제품안전지킴이단장인 김태운 한양대 교수가 각 분야별로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협약에 서명하였다.

또한, 제품안전 자율이행 협약을 체결한 쿠쿠홈시스(주)의 전기압력밥솥, 유닉스전자(주)의 도발전조기, (주)화창물산의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주)세피앙의 유모차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제품안전 자율이행' 마크()를 부착하였다.

행사에서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이제 제품안전은 기업과 소비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제품안전 자율협약'을 이행하는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업과 소비자 및 정부가 합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한 제품이 대우받을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 한국'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금년 중점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안전위해성이 큰 선풍기 등 27개 전기제품, 세정제 등 10개 생활용품, 비비탄총 등 12개 어린이용 제품 등 총 49개품목을 선정하였다.

제품안전지킴이단은 우선 선풍기, 구명복 등 여름용품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명복 등 여름철 용품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이 지난 5월 대형 할인마트를 중심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명복의 경우 15개사 제품 중 약 40%인 6개사 제품이 불법제품이었고, 튜브, 보트 등 물놀이 기구는 전체 11개사 제품 중 약 36%인 4개사 제품이 주의사항 등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기술표준원은 기업-소비자-정부의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사전예시적 자율안전관리제도가 정착되면 자율적인 안전관리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KS규격' 8월부터 '엠파스'에서 열람 가능

산자부, 엠파스와 업무협약 체결

□ 8월 1일부터 민간 포털사이트 엠파스(www.empas.com)에서도 KS규격 원문 열람과 함께 최신 제.개정 KS규격의 실시간 검색이 가능해졌다

○ 이로써 지난 '03. 6월 인터넷을 통해 KS규격 열람을 처음으로 시작한 국가표준정보센터(www.standard.go.kr)와 금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네이버(www.naver.com) 등 3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KS규격 정보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06.8.1(화) 김종갑 제1차관과 (주)엠파스 대표이사(박석봉)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엠파스 사이트를 통하여 이날부터 21,400여종의 KS규격 정보 검색 및 원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 그 동안 국가표준(KS)은 산업계를 중심으로 주로 전문가들에게만 정보로 활용되어 왔으나,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포털사이트에서 KS 규격을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일반 국민들도 표준을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공공 서비스 및 소비자 보호, 노약자·장애인 관련 규격 등 국민생활 속에서 다양한 국가표준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KS)의 보급확산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03.6월부터 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standard.go.kr))

에서 KS규격 무료열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KS규격에 대해 사전지식이 있는 사람들만이 회원 가입(회원별 맞춤서비스 목적)후 이용할 수 있었다.

-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06.1월부터 '네이버'와의 협약을 통해 일반인들이 민간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KS규격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므로써 국민생활속에 국가표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국가표준의 보급과 이용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KS 무료열람을 다른 민간 포털사이트와 표준화 유관기관 등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사이트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열람시 자주 발생하는 파일 다운로드 에러를 없애기 위해 9월부터 현재의 pdf파일을 e-Book 형태로 서비스할 예정으로 있다.

▶ 표준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기술표준원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표준물질에 대한 각종 정보를 표준물질 수요자나 생산자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표준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국제표준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은 표준물질의 종류가 다양하여 한 국가에서 전 표준물질을 개발(현재 26개국, 28,000종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각국이 필요한 물질을

개발한 후 모든 국가가 상호 활용하기 위하여 국제적 데이터베이스(COMAR)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구축하는 표준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은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06~'10년(5년간) 까지 2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표준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동 연구원내에 국가코딩센터를 설치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494종의 표준물질에 대한 DB구축 등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에 구축하는 이 시스템은 COMAR에 가입, COMAR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국내 표준물질 생산기관에 대하여 국제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인증표준물질 생산기관을 인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이번 표준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국내 표준물질을 COMAR에 등록함으로써 국내 표준물질의 국제적 공신력을 제고는 물론, 국내 표준물질의 품질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서 측정의 정확도 및 시험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동 시스템 구축으로 국내 표준물질 생산업체 및 수요자가 전 세계 표준물질 정보를 한 눈에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어, 국내 표준물질 생산업체는 수요가 많은 표준물질의 조기 개발을 통한 수입 대체와, 수요자는 필요한 표준물질을 저렴하게 공급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온실가스 국제표준지침에 따라 산정

- 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산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얻은 온실가스 제거량을 검증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된 틀이 마련되었다.
- 기술표준원은 기후변화관련 국제표준규격에 대해 지난 3개월간 국내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한국표준심의회 환경부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06. 7. 4일 한국산업규격(KS)으로 최종 확정고시하였다.
- 기후변화관련 국제표준규격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02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44개국 175명의 전문가들이 8차례의 국제회의를 통하여 제정되었는데,
- 기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산정하기 위한 지침(KS A ISO 14064-1)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원칙과 절차((KS A ISO 14064-2), 그리고 기업이 선언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을 평가하고 검증하는데 필요한 사항(KS A ISO 14064-3) 등 3개의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정된 KS 규격은 산자부 에너지환경팀 및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위한 기본 지침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이번 제정된 KS 규격은 우리 기업들과 관련 검증기관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규격 해

설서를 만들고 전국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관련 3개의 규격 이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검증하는 기관의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규격(ISO 14065)을 제정 중에 있으며 이 규격은 내년 초에 완성될 예정이다.
- 기술표준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검증기관의 자격 요구사항에 대한 규격 제정과정에서도 국내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는 한편,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참고로, 현재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 감축사업 등록에 필요한 비용 지원(200만원~500만원)과 에너지·자원 또는 신재생에너지 과제선정 평가 시 3% 이내의 가산점 부여, 그리고 감축실적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국가환경경영대상 및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 등이 있다.
- 또한, 올해 하반기 안에 정부 관계부처들간 협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 기술표준원은 '06년 7월 21일 금년도 상반기

서비스품질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등 35개 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인증서 수여식과 함께 「CEO의 인증기업의 품질혁신추진전략」에 대한 강의(한국서비스품질경영학회 회장 유시정 교수)와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음

□기술표준원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국내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금번 인증 받은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의 특징은

○인증 기업의 거의 절반이 삼성전자서비스(주), 한국전력공사, 교보문구, 삼성카드, AIG생명보험, 아시아나항공, 서울대공원, 국민은행콜센터 등 14개 대기업으로서 '03년 이후 대기업들의 참여가 주춤하였으나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 제도는 2001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금번 35개 기업을 포함 총 366개 업체가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음.

○한국전력공사, 송파구 및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서비스분야의 인증획득도 증가추세에 있어서 민간서비스분야에 질 좋은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인증서를 받은 주요기업들은 기업의 특성에 맞추어 신속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제도는 기술표준원이 '01년부터 서비스표준화와 함께 도입 시행한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유일한 정부인증 제도이며, 년 4회 정도 인증 심사를 수행한다.

□기술표준원은 '01년부터 관광, 이사, 택배, 텔레마케팅 등 소비자 불만이 많은 22개 분야에서 55종의 KS 규격을 제정하였으며, 앞으로는 시설관리, 콜센터, 경영컨설팅, 아웃소싱 등 기업지원 서비스분야의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